

Candida glabrata에 의한 식도염 10예

강도연*, 이정훈, 민천주, 김형준, 김홍준, 김현진, 김태효, 정운태, 이육재

*Candida glabrata*는 정상인에서는 정상균총으로 비병원성이지만, 면역억제제와 광범위 항생제의 사용 증가하면서 최근에 병원내 감염의 중요한 병원체로 등장하였다. *C. albicans*에 비하여 빈도는 높지 않으나, 가장 높은 치명률을 보이고,azole계 항진균제에 저항성을 보이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저자들은 fluconazole 치료에 실패하고 배양검사에서 *C. glabrata*를 동정하여 amphotericin B 투여로 치료에 성공한 *C. glabrata* 식도염을 경험하였다. Candida 식도염에서 배양검사를 통한 진균의 동정 결과에 따른 적절한 항진균제 투여가 필요하다.

증 례

66세 여자가 3개월 전에 본원 이비인후과에서 심경부 감염으로 국부 수술 및 장기간 항생제 치료를 받은 후에 퇴원하여 지내던 중, 1개월 전부터 인후통과 연하통이 동반되어 입원하였다. 내시경 검사에서 인두 입구부터 상부 식도까지 두꺼운 삼출물이 위막을 형성하여 덮고 있었고, 접촉하면 삼출물이 벗겨지면서 심하게 부어 있는 점막에서 출혈이 되었다. 조직생검에서 칸디다의 가성 균사와 이외에도 균사나 가성균사를 이루지 않은, 매우 작은 구형의 이스트같은 세포들이 산재해 있었다. 이스트들은 PAS 염색과 Gomori methenamine silver 염색으로 확인하였다. Fluconazole 정맥 투여에도 증상 개선은 없었고, 1, 3, 4주에 시행한 내시경에서도 호전이 없어, 다시 조직생검을 하면서 진균 배양검사를 시행하여 *C. glabrata*를 동정하였다. 즉시 amphotericin B를 투여하면서 증상이 호전되었고 2주 후에 시행한 내시경에서 삼출물과 점막의 발적 및 부종은 소실되었다.

소화기 유암종에 관한 고찰

김용수, 김태일, 박승우, 이용찬, 송시영, 김원호, 한광협, 정재복, 전재윤, 문영명, 강진경
연세의대 내과학교실, 소화기병연구소

소화기의 유암종은 신경 내분비 세포에서 발생하는 종양으로 위치, 성장 속도, 분비물질 및 증상이 매우 다양한 종양이다. 하지만 소화기 유암종은 위치에 따라 특징적인 증상 및 임상경과를 갖게 되며 치료 방법도 발생위치 및 전이여부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연구자들은 1991년부터 2002년까지 본원에서 소화기 유암종을 진단받고 치료받은 7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 1) 소화기 신경 내분비 세포 종양은 남자에서 흔하게 발생하였으며(M:F=50:26) 평균 발생 연령은 57세였다.
- 2) 평균 추적 관찰기간은 2년 7개월이었으며 5년 생존율은 80% 였다.
- 3) 위에서 호발하였으며 직장, 소장, 충수돌기 순으로 발생하였다.
- 4) 가장 흔한 증상은 복통으로 48.7%에서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설사, 무중상, 체중감소 순이었다.
- 5) 수술을 49명(64.5%)의 환자에서 시행하였으며 내시경적 절제술은 15명(19.7%), 약물 치료를 10명(5.3%)에서 시행하였다.
- 6) 진단시 원격전이가 있었던 경우는 14예(18.4%)였으며 11예(14.5%)에서 재발하였다.
- 7) 특수 면역 조직 화학 염색상 chromogranin에 65%, synaptophysin에 60%, neuron specific enolase에는 25%의 양성율을 보였다.

소화기 유암종은 위 및 직장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고 복통이 가장 흔한 증상이며 생존율은 다른 소화기 악성 종양보다 높았다. 앞으로 소화기 유암종의 체계적인 역학 연구 및 분자 유전학적 병인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